

# 臺灣 知識人 魏清德의 20世紀 初 東北亞 各國에 대한 認識\*

禹 在 鎬\*\*

<目 次>

I. 序 論	2. 朝鮮  인식
II. 魏淸德의 동북아 各國 여정과 遊記詩文	3. 中國  인식
III. 魏淸德의 20세기 초 동북아 各國에 대한  인식	4. 滿州  인식
1. 日本  인식	IV. 魏淸德의 동북아  인식 - 결론에 대신하여

## I. 序 論

20세기 초 한국과 대만은 모두 일본의 식민지로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여러모로 낙후했던 중국은 서구 열강에 의해 침탈당하는 와중에 辛亥革命 등의 변란을 겪었으며, 만주에서는 만주제국이란 새로운 국가가 성립되기도 하였다. 본고에서는 20世紀初 대만인들은 동북아 各國, 즉 일본, 조선, 중국, 만주를 어떤 시각으로 보았는지, 한 대만 지식인 魏淸德의 일본, 조선, 중국, 만주 여행기와 시가를 통해 탐색해보고자 한다.<sup>1)</sup>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2016 Taiwan Fellowship Program.

\*\* 嶺南大學校 中國言語文化學科 教授

1) 한국과 대만 지식인들은 서로를 바라보는 인식의 차가 있었을 것이고, 또한 같은 중국이지만 대륙과 대만의 지식인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과 식민지 조선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차이점이 있었을 것이며, 대만, 조선, 중국, 일본

왜 위청덕인가? 위청덕은 시인 및 신문기자의 신분으로 20세기 초에 직접 일본, 조선, 중국, 만주를 모두 여행하며, 자신이 보고 듣고 느낀 일본, 조선, 중국, 만주의 모습을 시와 산문 등의 작품을 통해 상당수 많이 남기고 있는 대만 지식인 중의 하나이다.

본고에서는 동북아 각국, 즉 일본 조선 중국 만주를 묘사하고 있는 위청덕의 시와 산문을 중심으로 20세기 초 대만 지식인 위청덕의 눈에 비친 일본 조선 중국 만주의 모습, 즉 그가 지니고 있었던 일본 조선 중국 만주에 대한 인식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먼저 그의 일본 조선 중국 만주 여정과 여행 목적 및 그의 시문 중 일본 조선 중국 만주를 묘사하고 있는 문장 등을 정리해보고, 이들 작품을 통해 대만 지식인 위청덕의 눈에 비친 일본 조선 중국 만주 모습, 즉 동북아 각국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 II. 위청덕의 동북아 각국 여정과 遊記詩文

대만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았던 위청덕은 26세 때인 1911년(明治 44年, 宣統 3年, 辛亥) 南淸 지역을, 28세 때인 1913년(大正 2年, 民國 2年, 癸

---

지식인이 만주를 바라보는 시각 또한 다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식민지 조선에서의 대만 인식에 대해서는 손준식의 <식민지 조선의 대만 인식-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중심으로>(《대만을 보는 눈-한국 대만, 공생의 길을 찾아서》, 최원식·백영서 엮음, 서남동양학학술총서, 창비, 2012.11)라는 논문을 참고할 수 있는데, 이 글은 일제시기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대만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당시 조선인의 개인 저작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았다. 대륙의 지식인들이 식민지 조선을 바라보는 시각은 20세기 초에 발표된 여러 견문기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대만 지식인이 식민지 조선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다. 20세기 초 동북아시아의 대만 일본 조선 중국 만주 등 각국의 지식인들은 상호간의 인식에 있어서 다양한 시각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호 인식과 시각 차이를 한 편의 논문에서 모두 다룰 수는 없을 것이므로, 본고에서는 우선 대만 지식인 위청덕이 보았던 동북아 각국, 일본 조선 중국 만주에 대한 인식에 대해 탐색해보고자 한다.

丑)에는 일본을, 30세인 1915년(大正 4年, 民國 4年, 乙卯)에는 福州에서 백여 일간 생활하면서 福建省 일대를, 50세 때인 1935년(昭和 10年, 民國 24年, 乙亥)에는 두 번째 일본을, 51세 때인 1936년(昭和 11年, 民國 25年, 丙子)에는 滿洲와 朝鮮의 여러 지역을, 54세 때인 1939년(昭和 14年, 民國 28年, 己卯)에는 다시 복건성을 여행하였다. 이로 볼 때 위청덕은 일본과 조선 및 비록 남쪽에 국한되었지만 중국 본토와 만주를 두루 유람하였던 대만인이라 할 수 있으며, 시인 및 기자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여행 기록을 시문으로 상당히 많이 남기고 있다.

위청덕은 일생동안 일본을 두 번 여행하였다. 첫 번째는 28세 때인 1913년 일본 관광여행 시찰단의 일환으로, 4월 16일 새벽 下關에 도착하여 下關(宮島와 巖島), 大阪, 京都, 東京(日光), 橫濱, 名古屋, 奈良, 神戸 등지를 20일간 여행한 것이다. 이 일본 여행의 목적은 표면상 관광이었지만, 관광 이외에 桃山皇陵 참배와 大阪에서 거행되는 拓植 博覽會 참관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sup>2)</sup> 두 번째는 50세 때인 1935년에 東京, 京都, 神戸 등지를 다닌 것이다. 두 번째 일본 여행에서는 12일 동안 주로 동경에서 머물렀고 특별히 다른 지역을 여행하지 않았으므로,<sup>3)</sup> 첫 여행에 비해서는 여정도 단순하였고 여행을 기록한 시문도 많지 않다. 두 번째 일본 여행의 목적은 동경에서 거행되는 釋奠祭典과 國際儒敎大會에 참석하는 것이었다.<sup>4)</sup> 위청덕은 첫 번째 일본 여행 기간 동안 <東遊見聞錄><sup>5)</sup>이란

- 
- 2) 黃美娥 編, <二十四 拓博>, 《魏德清全集》(全8冊) 3冊, 2013, 254쪽. “主要目的, 桃山皇陵參拜與拓博之觀覽耳.”
- 3) 黃美娥 編, <八 滯京十二日間>, 《魏德清全集》 4冊, 2013, 262쪽. “計滯京不過十二日間, 大東京市約通過四分之三.”
- 4) 黃美娥 編, <其一>, 《魏德清全集》 4冊, 2013, 249쪽. “東京湯島聖堂重新後第一次釋奠, 斯文會東邀中華民國滿洲帝國朝鮮臺灣各地代表凡四十五名, 及國中斯道關係者百有餘名, 參與其盛. 臺灣之參列者爲臺大今村文政部長新竹鄭養齋先生及余三名, 不勝榮幸之至. 余與鄭先生搭四月念二日瑞穗丸首途, 五月十三日回臺, 前後往返適三星期間.”
- 5) <東遊見聞錄>은 1913년 4월 23일 발간의 臺灣日日新報 4627號 6版에서부터 1913년 6월 1일 같은 신문의 4667號 4版까지 33회에 걸쳐 연재하였다. <東遊

제목으로 33편의 기사와 <東遊吟草><sup>6)</sup> 등에 32題 69首의 시를 창작하였고,<sup>7)</sup> 두 번째 일본 여행에서는 여행 기록으로 <東遊記略>이란 유기와<sup>8)</sup> 시 5수를 남기고 있다.<sup>9)</sup> 위청덕의 일본에 대한 인식은 이상의 <東遊見聞

見聞錄 > 33편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1~3회는 대만역에서 출발하여 下關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과 감회를, 4회는 일본 도착 후부터 일본 떠날 때까지의 전체 일정을, 5~25회까지는 일본 각 지역의 명승고적과 중요 사당을 조목별로 더 자세하게 기록하였고, 26~31회까지는 일본 여행에서 보고 듣고 느꼈던 개인적인 경험과 감회를, 32회에서는 귀국선을 탄 후의 상황과 소회를, 그리고 마지막 33회에서는 대만 도착 후 차창 밖의 풍경을 일본과 비교하면서 이번 여행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6) 1913년 4월 25일 발간의 臺灣日日新報 4629號 3版 <詞林-東遊吟草1>에서부터 같은 신문 1913년 5월 26일자 4660號 1版까지 <詞林-東遊吟草13>으로 연재하였다. <東遊吟草>에 수록된 시는 총 27題 62首인데, 제목만 열거해보면 <臨發> 五首, <備後丸舟中> 四首, <馬關>, <巖島> 四首, <紅葉谷> 二首, <須磨明石途上> 二首, <通天閣> 二首, <天王寺公園口占>, <造幣局櫻花盛開單重瓣滿地>, <大阪城吊古> 二首, <西京什咏> 六首, <十九夜觀都踊>, <自車中望琵琶湖>, <上野動物園什詠> 獅子·虎·象·駱駝·鶴·駝鳥·孔雀·鸚鵡 八首, <靖國神社> 四首, <贈蔡君式穀>, <唐君昭鈺囑題其子唐烈士殉難集>, <日光>, <大久保訪兒山翁席上分韻得先韻>, <兒山先生問臺陽故舊賦此奉答>, <觀高砂蔡有懷留學諸子> 二首, <橫濱新婚行>, <二見浦>, <菊水旅館>, <春日神社>, <奈良大佛>, <歸途> 六首 등이다.
- 7) <東遊吟草>에는 수록되지 않았지만, 臺灣日日新報 4666號 <雜俎-東遊見聞錄 32>와 <潤庵吟草>에 실려 있는 5題 7首는 첫 번째 일본 여행에서 지은 시임을 분명히 알 수 있기에, 이때 창작한 전체 시수는 총 32題 69首라 할 수 있다. 제목을 열거해보면 <雜俎-東遊見聞錄 32>에 실린 <下關晤茂笙君於信濃丸賦呈>과 <潤庵吟草>에 실린 <墨隄觀櫻漫興 寓日本東京中>, <日光東照宮>, <大阪城吊豐太閤>, <春帆樓> 三首 등이다.
- 8) 1935년 5월 31일자 臺灣日日新報 12631號 4版에서부터 같은 신문 1935년 6월 19일자 12650號 4版까지 십 회에 걸쳐 연재하였다. 그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1회는 대만 대표로 출발하는 인원과 날자와 湯島聖堂의 유래, 2회는 당도성당에서 거행하는 釋奠大典과 陳設品, 3-4회는 국제유도대회의 행사진행 관련 내용 및 각국의 참가자들, 5회는 紅葉館에서 거행된 詩書會, 6-7회는 漢學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한학 중흥의 기운에 대해, 8회는 동경 체류 12일간 만난 사람들, 9회는 京都와 神戶에서의 활동에 대해, 그리고 마지막 10회는 삼 주간에 걸친 두 번째 일본 여행을 회고하였다.
- 9) <次韻大倉祺君紅葉館邀宴碩儒諸公賦呈竝請教正>, <矢野先生招飲雅絃園有作>, <松江觀釣>, <奉命參湯島聖堂孔子祭歸途滯留攝津夢蝶莊賦呈莊櫻癡社兄晒正>,

錄>과 <東遊吟草>, 그리고 <東遊記略>에 대부분 담겨 있다.

위청덕의 조선 여행은 만주 여행 이후 계속하여 조선을 여행하는 것이었다. 15명의 일행이 旅行俱樂部 臺灣支部의 滿鮮視察團의 주최로 1936년 5월 9일 基隆港에서 山東丸에 승선하여, 5월 12일 저녁 大連港에 도착하여 시작한 만주 여행을 끝내고, 平壤으로 이동하여 京城, 金剛山, 釜山, 東萊 등을 여행하였다. 위청덕이 조선에 머물렀던 시간은 鴨綠江을 건너 평양에 도착한 21일 오전부터 부산항에서 昌慶丸을 탑승했던 27일 오후 11:30분까지 대략 일주일간이었다. 위청덕은 만주와 조선을 여행하면서 <滿鮮遊記><sup>10)</sup>라는 여행기를 남기고 있는데, 이 <滿鮮遊記>는 모두 回次 별로 나뉘어져 있으며, 대체로 만주와 조선을 여행했던 경로 순으로 제목이 정해져 있다.<sup>11)</sup> 위청덕은 조선 여행 기간 동안 다수의 시도 함께 창작하였는데, 조선 여행 기간 동안 창작한 시는 25題 32首가 전해지고 있으며, 이 시들을 모아 1937년에는 <<滿鮮吟草>><sup>12)</sup>라는 별집을 단행본으로

<夢蝶莊會洪毓慶君談閩南事有感賦呈> 등 5수이다.

- 10) 臺灣日日新報에 1936년 6월 2일부터 7월 5일까지 <滿鮮遊記(其一~其二十六)>라는 제목으로 연재하였다.
- 11) 이들 문장 중 조선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유기만을 순서대로 정리해 보면 其一(여행의 목적과 경로 등 전체 유기에 서문에 해당), 其十四 平壤, 其十五 金剛山, 其十六 舊萬物相 金剛石友, 其十七 京城(지금의 서울), 其十八 東萊溫泉, 其十九 非常時局, 其二十一 氣候, 其二十二 所聞所見, 其二十三 朝鮮, 其二十四 舊雨新雨, 其二十五 沿途訪舊, 其二十六 兩偉大 등이다.
- 12) 만주와 조선을 여행하면서 창작한 이들 시 역시 1936년 7월 10일부터 9월 19일까지 臺灣日日新報 <詩壇>란에 연재하였다. <<滿鮮吟草>>에 수록된 이 시들 중 조선 관련 시만을 열거하면 20. <鴨綠江>, 21. <平壤箕子陵>, 22. <平壤> 6首, 23. <宿外金剛>, 24. <神溪寺>, 25. <菩提樹> 2首, 26. <連珠潭>, 27. <九龍淵>, 28. <寒霞溪>, 29. <舊萬物相>, 30. <萬相亭>, 31. <盡日>, 32. <別金剛杖>, 33. <金剛石友>, 34. <京城>, 35. <朝鮮昌慶苑>, 36. <秘苑>, 37. <昌德宮牧丹>, 38. <乾清宮> 2首, 39. <訪松田學鷗翁賦贈>, 40. <悼鄭萬朝先生>, 41. <東萊城弔府使宗忠烈歌>, 42. <宿鳴戶旅館>, 43. <香魚>, 44. <松實> 등 25題 32首이다. 이 시들 중에 <平壤>, <舊萬物相>, <金剛石友>, <京城>처럼 <滿鮮遊記>와 제목이 동일한 경우도 있으나, 대다수인 20제 이상이 유기와는 완전히 다른 제목으로 시와 유기에 내용이 서로 보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滿鮮遊記>의 유기와 <<滿鮮吟草>>의 시를 비교 대조하여 읽으면 위청덕의

출간하였다.<sup>13)</sup>

위청덕은 중국 대륙을 세 번, 만주까지 포함하면 모두 네 번을 여행하였다. 첫 번째는 26세 때인 1911년(明治 44年, 宣統 3年, 辛亥)에 廈門, 汕頭, 香港, 廣東(지금의 廣州) 등 福建省과 廣東省의 南淸 지역을 두루 여행하였다. 臺灣日日新報에서 남중국을 10일간 탐방하는 南淸旅行團을 모집하였고,<sup>14)</sup> 위청덕은 신문사 기자의 신분으로 이 여행단에 함께 참가하였다.<sup>15)</sup> 이후 30세 때인 1915년(大正 4年, 民國 4年, 乙卯)에는 다시

조선 여행을 보다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

- 13) 아울러 위청덕에게는 <滿鮮遊記>와 <滿鮮吟草> 이외에 조선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문장이 여러 편 더 있다. 한일합방이 이루어졌던 1910년 신문에 게재된 기사들로, <參觀平壤妓生學校>(1910.4.24. 臺灣日日新報 3596號 5版 叢錄), <朝鮮人之階級>(1910.9.4. 臺灣日日新報 3709號 7版 叢錄, 1910.9.7. 3711號 4版 叢錄, 1910.9.8. 3712號 4版 叢錄, 1910.9.10. 3714號 4版 叢錄 등 4회 연재), <薪智島虎談>(1910.9.11. 臺灣日日新報 3715號 4版 叢錄), <朝鮮歌謠>(1910.9.25. 臺灣教育會雜誌 102號), <朝鮮之氣候>(1910.10.13. 臺灣日日新報 3741號 1版 譯叢, 1910.10.15. 3743號 1版 譯叢, 1910.10.20. 3746號 1版 譯叢 등 3회 연재) 등이다.
- 14) 1910년 12월 28일자 臺灣日日新報 3810號에 공지된 내용을 보면 12월25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 결과 총 70명이 신청하였고, 그리고 같은 날 추가로 2명이 더 신청하였다고 공지하고 있으나, 실제로 당일 집합 장소에 모여 여행단에 참가한 사람은 모두 54명이었다. 그들의 직업은 辯護士, 醫師, 僧侶, 樂商, 寫眞師, 會社員, 請負業人, 質屋, 回漕業, 調劑師, 布帛, 各種商賈 및 新聞記者 등 매우 다양하였다. 黃美娥 編, <一>, 《魏德清全集》 3冊, 136쪽. “其一行則五十有四人, …… 問其職業, 辯護士醫師僧侶樂商寫眞師會社員請負業人質屋回漕業調劑師布帛及各種商賈暨新聞記者, 雜然一大團體也.”; <二十一>, 175쪽. “計一行五十有四人, 歸者五十有二人, 滯留香港者一人, 留廈者一人.”
- 15) 이 여행에 대해서는 1910년 12월 4일자 臺灣日日新報 3786號에, 일행 등에 대해서는 1910년 12월 28일자 臺灣日日新報 3810號에 공지되어 있고, 아울러 臺灣日日新報 1911년 1월 15일 3826호부터 2월 22일 3862호까지 연재된 위청덕의 <南淸遊覽紀錄> 1과 21에도 그 대략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이 南淸旅行團은 신문사에서 사람들을 모집하여 구성하였는데, 대만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여행경비 25圓(어린이는 반값)을 납부하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1910년 12월 4일자 臺灣日日新報 3786號에 공고된 계획표 상의 여행 일정은 10일 오후 하문을 출항해서 그 다음날인 11일 대만 담수항에 도착하는 것으로 공지되었으나, 《魏德清全集》(黃美娥 編, 全8冊, 國立臺灣文學館, 2013.12), 3冊, 175쪽 <二十一>에는 “越十三日清晨, …… 大仁九時入淡

115일간 榕城(榕垣: 福州의 다른 이름)에 머물면서 福州 근처의 복건성 일대를 여행하였는데, 이 두 번째 중국행은 여행이라기보다 대만일일신보 사장의 명을 받들어 閩報의 增刊 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51세 때인 1936년(昭和 11年, 民國 25年, 丙子)에는 滿洲의 여러 지역을 여행하였는데,<sup>16)</sup> 이 만주 여행은 15명의 일행이 旅行俱樂部 臺灣支部의 滿鮮

水港.”이라 하여 13일 오전 10시에 淡水港에 입항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 유기에 기록된 내용으로 보면 이들이 더 순연되었다. 이는 원래 香港에서 이들을 숙박하기로 계획되었으나 실제로는 삼일을 숙박하였고, 하문에서 대만 담수까지의 항해 시간이 원래는 하루 예정이었으나 실제로는 이들이 걸렸기 때문에 생긴 지연이었다.

- 16) 이 만주 여행은 1936년 5월 9일 기륭항에 山東丸이란 배를 타고 삼박 삼일간의 항해 끝에 5월 12일 저녁 大連港에 도착한 것으로 시작하였다. 본격적인 여행 경로와 일정은 <滿鮮遊記> 其一(黃美娥 編, 《魏德清全集》, 4冊, 270 쪽)에 매우 세부적으로 언급되어 있으며, 이 여행은 21일 새벽 安東縣(지금의 丹東)에 도착하여 세관검사를 하고 오전에 압록강 철교를 건너면서 조선 여행으로 연결된다. 위청덕의 만주 여행의 목적과 동기, 그리고 일행 등에 대해서는 “白山과 黑水, 그리고 榆關과 樞城 사이는 오래전부터 여행하고 싶었던 곳이었다. 滿洲事變 후, 우리 대만 인사들 가운데 新竹의 謝介石씨 같은 이는 外交部大臣이 되고 駐日大使도 되어 建國元勳의 한 사람으로 칭해졌다. 이에 웅비하려는 뜻을 가졌거나 사업을 잃어버린 무리들이 다투어 세력 있는 자에게 의지하여 만주에서 한 자리를 찾고자 하였다. 그들 대만에서 찾았거나 과일 같은 물건을 산출하는 자들 중에는 만주로 건너간 이도 있고 관심을 가진 자도 있다. 이와 같다면 滿洲國의 나라 사정은 어떠한지? 王道樂土는 어떠한지? 최근의 개발 상황은 어떠한지? 장래의 계획과 발전은 어떠한지? 이러한 것들은 일반 독자들도 알고자 하는 바이다.(白山黑水, 榆關樞城之間, 欲遊久矣. 滿洲事變後, 吾臺人士如新竹謝介石氏爲外交部大臣, 爲駐日大使, 稱建國元勳之一. 於是, 志在雄飛及失業之徒, 爭欲攀龍附鳳, 求職其國, 他如臺灣茶葉及蔬果之配出, 渡滿者有人, 關心者有人. 若然, 則滿洲國之國情如何? 王道樂土如何? 最近之開發情狀如何? 將來之計劃發展如何? 亦一般讀者所欲知也.)”라는 언급에 잘 나타나 있다. 위청덕은 만주와 조선을 여행하고 싶은 마음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 여행을 통하여 만주국의 근황과 개발 상황, 장래의 발전계획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 일반인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자 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34년 만주제국이 성립된 후 많은 대만인들이 만주를 꿈과 기회의 땅으로 인식하였고, 위청덕 역시 새로운 기회가 무한히 펼쳐져 있는 王道樂土로 알려진 만주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다.

視察團 주최로 만주와 조선을 두루 여행하는 것이었다. 54세 때인 1939년(昭和 14年, 民國 28年, 己卯)에는 다시 한 번 더 廈門 등 복건성 일대를 여행하였다. 이 세 번째 중국 여행 때는 중일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그런지, 여행과 관련한 별다른 유기는 남기지 않았고 시만 몇 수 창작하였다. 따라서 정확한 여정과 일행이나 목적은 알 수 없고, 이 시를 통해 하문을 여행하였다는 사실만 알 수 있을 뿐이다.

위청덕은 직업이 시인이자 신문기자였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중국을 여행하면서 많은 시문을 창작하였다. 첫 번째 대륙 여행에서 창작한 유기는 <南清遊覽紀錄>에 모아져 있다.<sup>17)</sup> 신문 기사로도 게재한 21편의 유기 이외에 위청덕은 시도 26題 60首를 남기고 있다.<sup>18)</sup> 근 녀 달 가까이 복주에 머물렀던 두 번째 중국 여행에서도 상당히 많은 시문을 남기고 있다. 먼저 이 때 창작한 유기는 <旅閩雜感>이란 제목으로 모두 29편이 남아 있다.<sup>19)</sup> 이상 29편의 유기 이외에 위청덕은 시도 11題 27首를 남기고 있다.<sup>20)</sup> 만주 여행에서 지은 유기는 현재 <滿鮮遊記>로 남아 있고,<sup>21)</sup> 만주

17) 이 남청유람에 관한 산문은 臺灣日日新報 1911년 1월 15일자 3826호부터 2월 22일 3862호까지 <南清遊覽紀錄> <一~十一>호로 연재되었다.

18) 이 시들 역시 漢文臺灣日日新報 1911년 1월 20일자 3831호부터 2월 19일 3859호까지 <叢錄-南清紀錄附吟草>에 나누어 게재하였다. 이 때 창작한 시의 제목을 열거해보면 <發臺北驛口占>, <舟過黑瀨潮流>, <南普陀>, <鼓浪嶼>, <鼓浪嶼日本領事館樓上望遠> 三首, <別林家園庭>, <舟發鷺門口占>, <抵汕頭緬懷古哲>, <香江詞> 十三首, <六日曉抵廣東乘肩輿遍歷各勝是日向晚復乘輪船歸香港獨立船頭對如鉤新月如練晴江緬想一日遊慨然放歌十首以記其事> 十首, <謁潮陽韓文公祠> 四首, <潮陽開元寺>, <金山書院>, <發潮陽道上口占> 四首, <重歸汕頭寄弟清壬在醫龔>, <奉呈溟舫夫子郢正> 二首, <奉寄幼垣先生>, <寄懷林景商觀察> 二首, <贈施君範其> 二首, <贈江君蘊和> 二首, <呈小竹旭瀛堂長> 二首, <呈會長周君子文并告別臺灣公會諸友>, <別海禪詞兄>, <別毓臣詞宗>, <謁潮州韓昌黎公祠堂>, <登五羊城> 等 26題 60首이다. 이중 마지막 두 수는 <南清紀錄附吟草>에는 실려 있지 않고 <潤庵吟草>에 실려 있는데, 제목으로 보아 이 남청 유람 때 창작한 것이 분명하다.

19) 유기는 臺灣日日新報에 1916년 1월 29일자 5600호 6판부터 3월 8일 5638호 6판에 이르기까지 28회에 걸쳐 연재하였다. 이 때 지은 유기로 1915년 9월 30일 臺灣日日新報에 5486호 6판에 게재한 <鼓山遊記> 한 편이 더 있다.

20) 이 시들도 거의 대부분이 1915년 9월 14일부터 1916년 1월 중순에 이르기까

여행 기간 동안 <滿鮮遊記> 외에 다수의 시도 창작하여, 여행 기간 창작한 만주 관련 시는 21題 29首 가량이 전해지고 있는데,<sup>22)</sup> 이 시들을 모아 1937년 《滿鮮吟草》라는 별집을 단행본으로 간행하였다. 세 번째 중국

지 臺灣日日新報 <詩壇>난에 게재하였다. 福州에 체류했을 때 지은 이 시들의 제목을 열거해보면 <新秋> 二首, <烏石山頭見月懷吾黨諸友生>, <中秋夜寄懷吾黨吟社諸君子時客閩中>, <鼓山並序> 八首, <定光塔>, <福州蒼前山漫句>, <林君痴仙輓詩> 二首, <重陽賦寄遂園山人兼致一切知己>, <閩江竹枝詞> 八首, <寄題顏君雲年環鏡樓時客閩中>, <神戶莊君玉波一別四年詩余於閩報館賦此奉贈> 등 총 11題 27首이다.

21) 臺灣日日新報에 1936년 6월2일부터 7월5일까지 26회에 나누어 <滿鮮遊記> <其一~其二十六> 26회에 나누어 연재하였다. 이 <滿鮮遊記>는 모두 回次별로 나뉘어져 몇 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제목이 달려 있다. 대체로 만주와 조선을 여행했던 경로 순으로 제목이 정해져 있는데, 그 중 其一은 여행의 목적과 경로 등 전체 유기의 서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其十九부터는 만주와 조선에 대한 포괄적이고도 다양한 잡사나 개인 소감 등을 펼쳐내었다. 만주 여행과 관련 있는 유기만을 순서대로 열거해보면 其一, 其二 大連, 其三 旅順, 其四 新京(지금의 長春, 1932년에서 1945년까지 滿洲國의 首都), 其五 哈爾濱, 其六 哈爾濱, 其七 行樂機關, 其八 奉天(지금의 瀋陽), 其九 同善堂, 其十 北陵, 其十一 法輪寺, 其十二 北大營, 其十三 撫順, 其十九 非常時局, 其二十 滿洲國, 其二十一 氣候, 其二十二 所聞所見, 其二十四 舊雨新雨, 其二十五 沿途訪舊, 其二十六 兩偉大 등이다.

22) 만주를 여행하면서 창작한 이들 시 역시 1936년 7월10일부터 9월19일에 걸쳐 臺灣日日新報의 <詩壇>난에 연재하였다. 《滿鮮吟草》에 수록된 시들 중 만주와 관련한 시들을 열거하면 1. <大連> 二首, 2. <旅順戰跡>, 3. <水師營>, 4. <湯崗子溫泉>, 5. <晚翠閣>, 6. <連京線途上> 八首, 7. <新京重晤林小眉君感賦>, 8. <贈楊子青君>, 9. <贈王韞石君>, 10. <松花江>, 11. <謁濱江孔子廟堂>, 12. <極樂寺>, 13. <橫川省三沖禎介松崎保一中山直熊脇光三田村一三六志士碑>, 14. <艷說>, 15. <北陵>, 16. <法輪寺>, 17. <北大營>, 18. <奉天同善堂懷左忠壯寶貴>, 19. <撫順> 등 19題 27首이다. 《滿鮮吟草》에는 수록되지 않았지만, 만주를 여행하면서 지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가 두 수 더 있는데, 이 시는 1936년 5월 23일자 臺灣日日新報 <墨瀋餘潤>에 실린 <湯崗子曉得絕句>와 <東寧擊鉢吟後集>에 실린 <雲海>라는 시로, 이를 합산하면 만주 여행에서 지은 시는 모두 21題 29首가 된다. 이 시들 중 <大連>, <北陵>, <法輪寺>, <北大營>, <撫順>처럼 <滿鮮遊記>의 유기와 동일한 제목도 있고, <旅順戰跡>, <新京重晤林小眉君感賦>, <奉天同善堂懷左忠壯寶貴>처럼 <滿鮮遊記>의 유기 제목이 시제에 일부만 포함된 경우도 있지만, 반 이상이 유기와는 다른 제목이라 시와 유기가 서로 보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여행 기간에는 별도의 유거나 산문을 창작하지 않았고, 5題 11首의 시만 남기고 있는데,<sup>23)</sup> 이를 통해 1939년 3월에 廈門 일대를 한 번 더 여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이상 위청덕이 중국 여행 기간 창작하였던 작품들로는 <南清遊覽紀錄>·<旅閩雜感>·<滿鮮遊記>·<滿鮮吟草> 등에 담겨 있는 유기와 시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유기 70여 편과 시 61題 127首 가량 되는 상당히 방대한 양이다.

비록 중국 남부 지역과 만주 지역으로 한정되긴 하지만 위청덕은 일본 식민지 시절에 중국 대륙을 여러 차례 유람하였던 대만 지식인 중의 한 명이었다. 직업이 시인 겸 기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여행 기록을 시와 산문으로 상당히 많이 남기고 있어, 이 작품들을 통해 위청덕의 일본 조선 중국 만주 등 동북아 각국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 Ⅲ. 위청덕의 20세기 초 동북아 각국에 대한 인식

#### 1. 일본 인식

위청덕은 일본을 吾國, 我國, 本國, 母國, 內地 등으로 표현하여 우리나라라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 위청덕 자신이 일본 사람이라는 인식을 확실히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은 支那, 대만은 臺灣 또는 本島, 일본어는 國語, 중국어는 支那語로 칭하는 것은 당연하였다. 일본어를 잘 구사할 수 있었던 위청덕은 식민지 대만인이었으나 일본 여행 중에 일본 내지인들이 자신을 대만인으로 보지 않고 일본인과 구별 없이 대해주는 것에 감격하였다. 자신을 일본인이라 인식하였기에 황릉 참배와 신사 참배는 당연하였다. 위청덕은 매번 도착 지역의 신사를 참배하여 이에 대한 감회를 남

23) 이 시들의 제목은 <重遊廈門雜句> 七首, <遊鼓浪嶼日光嶼>, <日光岩讀蔡廷楷刻石詩有作>, <南普陀承林木土君招宴感賦>, <口占似韓浩川君及僑廈同鄉諸君子> 등이다.

기고 있는데, 황릉을 참배할 때와 천황에 대한 태도는 거의 굴종적일 정도로 자신을 낮추고 있다.

위청덕은 일본 여행에서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고, 이러한 인상을 시문에 비교적 자세하게 남기고 있다. 일본 여행을 하면서 부정적인 면보다는 일본의 긍정적인 면을 말하기로 한다는 여행기 서술의 원칙을 지니고 있었고, 이러한 원칙이 견지되었기 때문인지 위청덕의 일본 인식은 대체로 아름답고 선진적이고 우수하다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위청덕의 일본인에 대한 인식은 도덕심 충만, 친절함, 상무정신, 영웅 숭배, 황실에 대한 충의 정신 등등이 결집되어, 교육 보급과 문화 융성에 바탕한 민족 기상의 뛰어남과 민족 기운의 왕성함으로 결론지어진다. 이는 당시 일본의 수도 동경과 동경에 살고 있는 일본인을 이상적인 도시와 국민처럼 묘사하고 있는 동경 예찬에서 그대로 보인다.<sup>24)</sup> 일본인 전체의 민족적 기상과 일본 민족에 대한 인식은 만주와 조선을 여행한 후 일본 민족의 위대성을 깊이 느꼈다고 결론 내린 것에서 절정을 이룬다.<sup>25)</sup> 위청덕은 계속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본인을 선각자 내지 사형이라 추켜세우며 대만인은 일본인을 모범으로 삼아 그들을 배우고 따라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sup>26)</sup>

24) 黃美娥 編, <十三 東京>, 《魏德清全集》 3冊, 2013, 231-232쪽. “帝國首府, 統治者發呼號令施政之樞機, 氣象自與他處迥異. …… 京童意氣磊落, 不分階級, 居貧賤者, 亦有自主自發自負之精神, 以爲憲政之國, 門戶開放, 機會均等, 風雲到來, 即可破壁飛去. 而貴者富者之態度, 亦不敢以驕慢見於詞色, 人權互相尊重, 罔蹂躪也. 下者不屈, 上者不驕, 下者有敬人之念, 而無自辱自小之心, 上者有使人敬己之資格, 而無自慢自大之志, 此所謂不屈不驕也. 鄙人何以知之. 與之交接言語, 平情細心, 論察其機微也. 於戲! 是真有大國民之氣宇.”

25) 黃美娥 編, <滿鮮遊記> <其二十六 兩偉大>, 《魏德清全集》 4冊, 2013, 308-309쪽. “抑吾人此回之漫遊滿鮮, 益深感夫大和民族性及科學力之兩偉大也. 大和民族性之偉大, 爲上戴萬世一系之皇室, 國民上下一德, 知採取外國文化長處, 與固有文化相與融合爲一.”

26) 黃美娥 編, <三十一 他山之政>, 《魏德清全集》, 3冊, 2013, 266쪽. “內地人爲本島人之先覺者, 爲本島人之師若兄. …… 而況若師若兄之我內地人先覺者, 其有美處, 可不研究而取範之哉.”

위청덕이 일본에서 받은 깊은 인상을 요약해보면, 대체로 일본의 자연 풍광이 매우 뛰어나고 경승지 관리가 훌륭하다는 것, 일본은 과학화 선진화된 국가라는 것, 일본인은 기상이 우수하고 위대한 민족이며 종합적으로 일본은 위대한 국가라는 것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sup>27)</sup>

## 2. 조선 인식

위청덕이 조선을 여행하면서 창작한 시문에 담겨 있는 내용은 매우 포괄적이어서, 20세기초 대만 지식인 위청덕이 조선을 바라보는 시각, 즉 위청덕의 조선 인식은 매우 다양한 분야에 걸쳐져 있어 잡다하다는 인상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를 범주화해보면 크게 조선 亡國에 대한 인식, 조선 歷史에 대한 인식, 地理 현황 및 風物과 조선인에 대한 인식 등 세 분야로 요약할 수 있다.

위청덕은 같은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 여행을 오래전부터 그리고 있었다. 위청덕의 조선에 대한 관심은 대체로 개인적인 감회는 억제하면서 일반적인 현황에 대한 서술이 비교적 많다. 그러나 조선 亡國은 필연적인 것이라고 하면서도 은연중에 조선 망국을 탄식하며 개인적 감개를 펼쳐내기도 하였으니, 이는 대만 자신의 무의식적인 투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조선 역사나 조선 현황에 대한 인식에서는 잘못된 인식도 다수 있기는 하였으나, 매우 포괄적이고 때로는 지엽적인 조선에 대한 인식을 모두 보여주고 있다.

위청덕이 조선 역사 기술에서 선택한 용어를 보면 중국인 또는 대만인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철저하게 일본인의 입장이 되어 있다는 것은

27) 필자는 위청덕의 일본 인식에 대해 東亞細亞文化交渉學會(The Society for Cultural Interaction in East Asia) 2016년 제8회 국제학술대회에서 <20世紀初 日治時期 臺灣知識人 魏清徳의 日本 認識>(《Proceedings of Society for Cultural Interaction in East Asia, 8th Annual Meeting 2016-東アジア文化交渉学の新しい歩》 第8輯, 日本 關西大學, 2016.5.7, pp.89-97)이란 논문을 발표하였고, 본고의 내용은 발표 논문의 요약이다.

특기할 만하다. 이는 위청덕이 어릴 때부터 일본식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발생한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시에서 일본군을 적이란 어휘로 지칭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시어의 선택은 식민지 지식인의 의식 속에 잠재된 무의식의 반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sup>28)</sup> 이는 중국 고대 문헌에 기술되어진 조선에 관한 역사 인식을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그대로 수용한 중국인의 입장과 일본을 모국이라 생각하여 일본인의 입장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용어를 선택하는 시각이 동시에 존재하는 정체성의 혼란에서 야기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조선의 풍속을 전반적으로 개괄하여 중국과 일본의 풍속과 비슷하지만 대체로 중일 양국의 중간쯤에 위치하는 것 같다고 하였다. 그러나 결국은 자신을 일본인이라고 인식하였고 조선을 대만과 같이 일본의 일부분으로 인식하였으므로, 조선과 대만은 비록 서로 남북으로 떨어져 있지만 手足의 관계에 있는 형제의 나라 내지 한 나라로 인식하였다.<sup>29)</sup> 위청덕은 일본에 합병된 대만과 조선은 다른 점도 있지만 여러 면에서 비슷한 점이 많아, 서로 별 차이 없는 한 나라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sup>30)</sup>

### 3. 중국 인식

위청덕의 눈에 비친 중국, 즉 위청덕의 중국 인식은 한 마디로 요약하면 부정적이었다. 위청덕의 중국 여행이 비록 중국 전역에 대한 여행이 아

28) 申正浩, <臺灣文學之韓國認識—二十世紀前半期東亞文學的一風景>, 《中國現代文學》 第32號, 2005.3, 223-224쪽

29) 黃美娥 編, <朝鮮之氣候>, 《魏德清全集》 3冊, 2013, 127-128쪽. “朝鮮與臺灣, 一在地之北, 一在天之南, 一由日清戰役割讓, 一因日俄勝戰合併, 其事情相恍惚, 而諒若手足兄弟也. …… 朝鮮今日之行政方針及官制組織法律委任等, 皆與臺灣大同小異, 可不知乎.”

30) 필자는 위청덕의 조선 인식에 대해 이미 <臺灣 知識人 魏清德의 20世紀初 朝鮮 認識>(《東北亞文化研究》 第47輯, 東北亞細亞文化學會, 2016.6.30, pp. 25-42)이란 논문을 발표하였고, 본고는 발표 논문의 요약이다.

니고 香港을 포함한 중국 남방의 하문, 산두, 복주 등 몇몇 도시를 여행하거나 거주한 것이었지만, 이 남중국이 대체로 香港 등 개항지가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중국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오히려 선진화되고 개발된 곳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청덕의 눈에 비친 중국은 낙후하고 후진적이며 정리되지 않고 지저분한 이미지로 인식되었다.

위청덕은 가는 곳마다 먼저 그 도시의 지리와 인구 등 도시 현황에 대해 기술하였고, 이러한 기술에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 것은 위청덕의 눈에 비친 그 도시의 인상이었다. 그런데 위청덕의 눈에 비친 중국 도시 인상의 공통점은 香港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시가 불결하고 낙후하였다는 것이다. 미개하고 열등한 중국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福州에서 몇 달간 생활하면서 더욱 강해졌다. 도로가 좁고 지저분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었고, 때로는 중국 도시에서의 혐오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예들까지 열거하면서 이를 열등한 국민성으로까지 연결시키고 있다.

위청덕은 중국이 낙후하고 열등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는데, 대부분의 도시가 후진적인 것은 낙후한 정치체제와 국민성에 그 원인이 있다고 인식하였다. 중국의 고대 과학문명과 문화에 대해서는 자부하는 태도를 지녀 중국 고대 문명에 대해서는 찬탄을 마지않았으나,<sup>31)</sup> 이러한 찬란한 고대 문명을 지녔던 국가가 마침내는 퇴화하여 낙후하였음을 비통해 하였다. 그는 중국이 이러한 퇴보와 퇴화를 하게 된 것은 야만적인 전제 정치에서 기인한 여러 가지 이유, 실용적이지 못한 과거시험의 인재 등용 제도, 국가와 공익을 생각지 않는 보신 위주의 관리와 선비 등등 때문이라 여겼는데, 이러한 병폐로 인해 중국은 마침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고 생각하였다.<sup>32)</sup> 위청덕은 야만적인 전제 정치로 인해 중국이

31) 黃美娥 編, <南清遊覽紀錄>, 《魏德清全集》3冊, 2013, 149-150쪽. 其八 “因歎古之文明孰有若支那人種者乎. 黃帝 …… 以指南針示其路, 禹治洪水幾何測量 …… 堯時羲和 …… 外而蒼頡文字 …… 他如火藥活版哲理法制, 不能盡舉, 燦然備矣.”

32) 黃美娥 編, <南清遊覽紀錄>, 《魏德清全集》3冊, 2013, 150쪽. 其八 “而後王專制野蠻, 以無用文字之考試愚天下之黔首, 殺天下之人才, 而士亦汲汲爲身家財

퇴보하였다는 인식을 확고하게 지니고 있었으니, 이는 그가 기회가 된다면 야만적인 전제정치가 중국의 가장 큰 문제임을 여러 번 지적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야만적인 전제 정치가 중국에 미친 폐해, 즉 역사적으로 전제 군주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부정적 요인들로, 온 나라에 정의로운 생기가 없다, 현인들이 지위를 박탈당한다, 호걸들이 해체된다, 참언하고 아침하는 무리들이 계속 생겨난다, 엄하고 혹독한 관리들이 윗사람의 뜻만 맞추려 한다, 위아래 사람들이 서로 원망한다 등등을 열거하면서 국가가 열패하지 않을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sup>33)</sup> 이러한 전제 정치에서 비롯된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위청덕이 거론한 중국의 병폐와 중국 쇠퇴의 여러 가지 원인으로 관료 사회의 봉당 정치,<sup>34)</sup> 帝制派의 표리부동과 언행 불일치,<sup>35)</sup> 무력적이며 엄하고 혹독한 관리, 儒家의 소극적인 학문, 국민의 원기인 武士道 정신의 단절, 틀에 박힌 도학가들의 玩物喪志와 부화뇌동, 황제에 대한 아침, 나라와 가족을 보위함에 鐵血政策과 軍國主義를 실행하지 못함, 인민의 고향을 착취하는 군주와 관료, 중국 인민들의 애국심 부족, 자신의 길흉회복만을 도모함 등등을 열거할 수 있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중국 사회의 개량 필요성을 나열하기도 하였는데, 가장 먼저 시급히 시행해야 할 것으로 정치의 개량을 거론하였고, 다음으로 백성들 교육과 자원의 개발, 그리고 부녀자들의 전족 풍습의 개량 등을 거론하였다.<sup>36)</sup> 이

利計，無肯爲國家社會盡死力，遂至退化至今，爲天下笑，可不悲歎！”

- 33) 黃美娥 編, <旅閩雜感>, 《魏德清全集》3冊, 2013, 335쪽. 其六 “彼帝制者, 將無倒行逆施, 重演愚民之政策耶? …… 帝制一朝成立, 則專制之程度愈臻黑暗, 君權萬能, 壓迫不已, 遂生反動, 謂支那大陸不復見干戈流血之慘, 不敢信也. …… 於是乎四海之內六合之中無所謂之正義生氣, 賢人去位, 豪傑解體, 讒諂面諛之徒方且繼進, 而武健嚴酷之吏遵奉上意, 上下交怨, 國其不淪於劣敗乎?”
- 34) 黃美娥 編, <旅閩雜感>, 《魏德清全集》3冊, 2013, 330쪽. 其二 “閩省官場之勢力, 殆爲安徽派壟斷獨占, 巡按使許君世英 ……等, 悉係徽人, 不可勝紀, 龍攀鳳附, 根引而株連之者也. 朋黨附周, 依估情實, 世無文野, 類皆不免.”
- 35) 黃美娥 編, <旅閩雜感>, 《魏德清全集》3冊, 2013, 336쪽. 其七 “帝制之利害得失, 贊成有人, 而其著論終不免於牽強附會指鹿爲馬之謬, 而況架空樓閣. 帝制派之欲以一氣呵成者, 手段甚劣, 彼於民意壓迫偽造詐欺恐嚇而外, 搜捕黨人閉塞言論, 不遺餘力.”

와 더불어 교통 불편 및 언어와 문자의 개량과 통일이 급선무임을 강조하였다.<sup>37)</sup>

아울러 위청덕은 영국 러시아 등 서구 열강 및 일본과 비교하면서 중국의 현실을 더욱 두드러지게 부각시키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대만과의 비교를 통해 중국의 현주소를 인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위청덕이 대만인이었기 때문에 그러하겠지만, 특히 대만과의 비교를 통해 중국을 인식하고자 하는 경우가 두드러지게 많다. 이 같은 대만과 중국을 직접적으로 대비한 예는 중국이 야만적인 전제 정치로 인해 퇴보와 퇴화를 하게 되었으나 대만은 일본 통치를 받아 고등 학문을 하게 되어 백성들이 고등 학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언급에서 극단적으로 드러난다.<sup>38)</sup> 위청덕은 일본에 대한 배일이 마땅하지 않다고 인식하였는데,<sup>39)</sup> 선진 열강 중의 하나인 일본의 통치를 받는 대만이 후진적인 중국보다 더 선진화된 것에 대해 자부하는 태도를 지니기도 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게 된 데는, 위청덕이 대만에서 태어난 본성인으로 본래가 중국인이었지만, 두 번의 일본 여행을 통해 산업화 선진화된 일본을 체험하였고, 이에 더해 일본의 식민지가 된 이후 산업화되고 서구화되고 선진화되어 변화 발전한 대만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36) 黃美娥 編, <旅閩雜感>, 《魏德清全集》 3冊, 2013, 345쪽. 其十四 “談支那之改良者, 首由政治, 其次則民智開發富源增殖. 支那人民苦於專制, 若婦女子之纏小足.”

37) 黃美娥 編, <旅閩雜感>, 《魏德清全集》 3冊, 2013, 343쪽. 其十三 “支那交通不便, 其語言未能統一, 例如榕垣省會之用語與閩省地方用語不同. 文字雖不普及, 舉國通用. 文字者 …… 蓋改良, 支那目下之急務也.”

38) 黃美娥 編, <南清遊覽紀錄>, 《魏德清全集》 3冊, 2013, 150쪽. 其八 “吾僑幸歸新政府治下, 幸勿仍守故陋, 奮一足而留學內地, 且負笈歐美, 養高等之學問, 爲國家有用新附之臣民. 嗚呼, 臺灣隸版圖十餘星霜矣, 而無一人有高等之學識.”

39) 黃美娥 編, <南清遊覽紀錄>, 《魏德清全集》 3冊, 2013, 160쪽. 其十四 “夫自東洋大勢同文同種及唇齒關係而言, 則不宜排日, 自臺灣籍民而言, 則更不宜排日.”

#### 4. 만주 인식

현재 만주는 중국의 일부분이지만, 위청덕이 만주를 여행할 시점인 1935년에는 만주제국으로 독립한 상태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만주국에 대한 인식을 별도의 장으로 나누어 다루어보았다. 위청덕은 일본은 물론이고 한국 중국을 여행하면서 각 도시에 도착하면 지리 인구 물산 등 해당 도시의 현황을 요약하였는데, 이는 만주의 여러 도시를 다닐 때도 예외는 아니었다. 1932년 건국하여 1934년 만주제국으로 성립된 만주국은 위청덕에게는 신천지로 인식되었다. 위청덕의 만주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일본 제국이 표방한 구호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다. 그는 만주국을 일본 제국이 내세운 五族協和라는 標語와 王道樂土라는 理想을 그대로 받아들여 소개하고 있다. 위청덕이 일본 제국의 관점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은 본인이 일본인이란 인식을 가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미 일본의 영토에 편입된 대만이 만주에서 차지할 지분이나 활동할 수 있는 역할이 많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던 듯하다. 실제로 만주의 산업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대만의 산업과 어떻게 연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 대만의 모봉차 수출과 만주의 대두 수입 등과 같은 교역에 관하여 언급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만주에 진출한 대만인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출하여 대만인으로 만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 중 외교부대신인 謝介石, 鑛物司長인 陳文山, 歐美科長인 林景仁, 僑務科長 楊松과 그 외에 張健侯 余逢時 沈文華 謝秋濤 楊爾洲 등을 거론하였는데, 위청덕이 거론한 대만인들은 대다수가 만주국 건국 진후에 만주에 정착한 사람들이었다. 만주국 건국 초기에는 취업하기가 쉬웠으나, 만주국이 건국하고 기초가 다져진 지금은, 더욱이 산동에서 노동자 이민 수십만 명이 이주해오고 조선에서 농민들이 대거 진출하여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대만 사람들이 취직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면서도, 아직은 의업 분야와 상공업 분야에는 대만인들이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덧붙이고 있다.

아마도 만주국이 중국 본토 침략을 염두에 둔 일본제국에 의해 성립되었기 때문에, 일본에게 있어서 중국어와 일본어에 모두 능통했던 대만인들의 협조와 역할이 상당히 필요하였을 것이고, 대만인에게 있어서도 왕도낙토로 알려진 만주라는 신개척지로의 진출은 상당히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었음에 틀림없었던 듯하다.<sup>40)</sup>

아울러 1935년 만주와 조선을 직접 여행하고 난 뒤에는 동북아의 현시점이 비상시국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면서, 일본과 만주가 서로 상생하여 동아시아의 평화를 보존하고 대아시아주의를 제창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를 실행하고 달성하는 주체로 일본이 가장 적합한 국가라 인식하였다.

#### IV. 위청덕의 동북아 인식 - 결론에 대신하여

위청덕은 조선과 일본 및 중국 본토와 만주를 두루 유람하였던 대만인으로, 시인 및 기자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여행 기록을 상당히 많이 남기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그가 남기고 있는 이들 시문을 통해 20세기 초 대만 지식인 위청덕의 동북아 각국에 대한 인식을 탐색해보았다. 아울러 만주와 조선을 여행한 후 동북아의 시국에 관해 심도 있게 언급한 문장을 통해 위청덕의 동북아 인식을 어느 정도 간파할 수 있다.

위청덕은 1911년 남청유람 중에 기록한 문장에서 중국에서 배일 정서가 생기게 된 원인을 분석하면서, 일본과 중국은 순망치한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가 먼 미래를 내다보며 깊이 생각하여 서구 열강에 대적할 힘을 합쳐야 한다고 설파하였다.<sup>41)</sup> 일본과 청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말

40) 만주 건국에 있어서 대만인의 진출과 역할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보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대체로 일본 본토의 정치인들과 대만인의 이해 관계가 상당 부분 합치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1) 黃美娥 編, <南清遊覽紀錄>, 《魏德清全集》 3冊, 2013, 174쪽. 其二十 “排日之原因種種, …… 三爲在支那各國勢力經營之暗鬪. …… 各國勢力暗鬪, 外似平和, 其中之伏機百出, 歐美各國莫不皆然, 近今美之行動尤爲顯著. 嗚呼, 爲千百

고 서로 힘을 합쳐 서구 열강의 계략에 대응해야 한다고 한 인식 속에는 중국인과 식민지 대만인의 일본인과 중국인의 이중적 의식이 그 배경에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자신이 일본인이란 생각을 지니고 있긴 하였지만 중국인이란 생각이 의식 속에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1915년 북주에서 백 일 가량 머물며 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소감을 적은 <旅閩雜感>의 마무리 문장에서도 보이는데, 일본과 중국은 형제국과 같아 서로 친선을 유지하여 서구 열강에 맞서서 동양의 국가를 지켜야 한다는 논지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sup>42)</sup> 조선과 대만을 형제의 나라로 이미 일본의 일부분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이 동아시아 황인종의 고유 문명을 지켜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만주제국이 성립된 후에 만주와 조선을 유람하면서 남긴 위청덕의 문장에서는, 1910년대 중국과 일본을 유람한 직후에 지냈던 동북아에 대한 인식과는 다른 점이 보인다. 만주와 조선을 여행하고 난 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및 만주사변이 일어났던 전쟁의 유적지를 직접 답사한 위청덕은 동북아에서의 현시점이 비상시국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sup>43)</sup> 위청덕은 현시점의 국제적인 문제점이 러일전쟁이 일어났던 그 때보다도 열 배나 더 복잡해졌다고 보았고, 각국의 군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모든 문제가 여기에서 일어난다고 인식하였다.<sup>44)</sup> 그러면서 위청덕은 일본과 만주가 서로 상생하여 동아시아의 평화를 보존하고 대아시아주의를 제창하여야

年東亞大計，日清兩民種當慎思遠謀，各捐個人一時利益，勿妄爲舌齒之齟齬，則庶幾乎。”

42) 黃美娥 編, <旅閩雜感>, 《魏德清全集》 3冊, 2013, 362-3쪽. 其二十八 “孰謂日支親善及支那啓發爲外交上口頭禪耶。日支親善，必也兩兄弟發生國民的遠大自覺，日支其豆相煎，東洋其不國乎。謂之啓發，啓發其智根啓發其富源”

43) 黃美娥 編, <滿鮮遊記><其十九 非常時局>, 《魏德清全集》 4冊, 2013, 297쪽. “余此回滿鮮之遊，益深夫非常時局之認識矣。自大連之旅順 …… 至哈爾濱，所過無非日清日俄兩役乃至滿洲事變時戰爭之遺跡也。”

44) 黃美娥 編, <滿鮮遊記><其十九 非常時局>, 《魏德清全集》 4冊, 2013, 298쪽. “何謂非常時。方今國際間之複雜，十倍日俄戰役。…… 國境軍備過盛，問題斯起。”

하는데, 일본이야말로 이를 실행하고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국가라고 인식하면서 그 이유를 몇 가지 거론하고 있다.<sup>45)</sup> 이러한 점들은 대동아공영권을 부르짖었던 일본 제국주의가 아시아 침략의 당위성과 정당성으로 내걸었던 슬로건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위청덕은 20세기 초 승승장구하던 일본을 모국으로 생각하였으나, 일본의 패전으로 이차세계대전이 종결되고 중화민국이 대만을 차지한 이후는 일본이나 중국에 대해 어떠한 발언도 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작품 활동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청덕의 일본과 중국에 대한 목소리는 1945년 일본이 패망하고 중국 본토의 국민당이 대만으로 옮겨온 이후부터는 현저하게 낮아진다. 이는 이미 나이가 많아진 탓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자신이 지녔던 일본 중심의 동북아 인식과는 너무도 다른 방향으로 국제 정세와 판도가 급격하게 변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백 년 전인 20세기 초와 21세기 초인 오늘날을 비교해보면 대만을 둘러싼 주변 상황이 크게 바뀌어 있다. 위청덕의 시각에 열등하고 후진적이었던 중국은 대국굴기의 슬로건을 내세우며 지금 G2의 지위에까지 올라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졌고, 백 년 전 위청덕이 불결하고 불편하다고 묘사 하였던 하문 산두 조주 등은 고층건물이 즐비하고 깨끗해진 현대적 도시로 바뀌어, 상전벽해라는 말이 어울리게 되었다. 일본은 문화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여전히 지니고는 있지만, 종전 이후 패전국의 지위에 있어 예전과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20세기 초로부터 대략 백 년이 지난 지금, 대만과 한국은 주변국들의 위치만 바뀌어졌을 뿐 백 년 전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20세기 초 대만 지식인 위청덕의

45) 黃美娥 編, <滿鮮遊記><其二十八 兩偉大>, 《魏德清全集》4冊, 2013, 308-309쪽. “觀其日滿兩國之相爲生命, 及東亞平和保存大亞細亞主義之提唱, 非僅依軍備之強, 國民實具有汪洋包含之襟度, 扶弱鋤強, 不爲苛察之細行, 或短兵急, 責備求全, 一基於武士道精神之發露. …… 日本人士之在於滿洲者又多通曉漢文, 間有能詩而相與酬詠者, 文字上之 …… 是數者, 於大東亞口局之執牛耳主盟, 爲極合理的, 而且居於自然有利地位.”

동북아시아 각국에 대한 인식은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References>

1. Choi Won-sik·Baik Young-seo, *A Viewpoint on the Taiwan: Korea and Taiwan, Finding The path of Symbiosis*, Academic Series of Seonam Oriental studies, Changbi Publishers, 2012.11.
2. Huang guan-zhong, *Bibliography of Chinese publication on Sino-Korean relations*, Bibliography Series of Resource and Information Center For Chinese Studies, Resource and Information Center For Chinese Studies, Taiwan, Taipei, Minguo76[1987]
3. Huang Mei-e, *The Complete Works of Wei Qingde* (all 8vol), National Museum of Taiwan Literature, 2013.12.
4. Li Jin-Rong, Travel Joseon recollections, *Oriental Magazine*, Vol.13 No.7, pp.49-50, Minguo5[1916].7.10.
5. Liang Chi-chao, *Geguo xingwang xiaoshi bazhong*(各國興亡小史八種), Shanghai: Zhonghua shuju, Minguo30[1941]
6. Liang Chi-chao, *The Complete Works of Liang Chi-chao* (all 10vol), No.3-4, Beijing Publishing Co., 1999.
7. Lucun nǚshi, Travelogue of South Manchuria and Joseon Railway, *Guowen Weekly*, Vol.3 No.40, pp.1-3, Minguo15[1926].10.17.
8. Lucun nǚshi, Travelogue of South Manchuria and Joseon Railway(A sequel), *Guowen Weekly*, Vol.3 No.41, pp.1-3, Minguo15[1926]. 10.24.
9. Kiyasu Yukio, Gan Cheng Translated, *The Secret history of Taiwanese Anti-Japan Patriots*, Juzhen Bookstore Publishing Co., Taiwan, Taipei, Minguo71[1982]

10. Shin Jeong-ho, A Viewpoint on the Korea in Modern Taiwanese Literature, The Korean Society Of Modern Chinese Literature, *The Journal of Modern Chinese Literature*, Vol.32, 2005.3, pp. 209-230.
11. Wang Tong-ling, Miscellanea of Travels in Joseon, *Oriental Magazine*, Vol.18 No.14, pp.91-94, Minguo10[1921].7.25.
12. Wei jian-gong, *The Complete Works of Wei jian-gong* (all 5vol), No.5 <Qiao Han Suo Tan 僑韓瑣談>, Nanjing, Jiangsu Education Press, 2001.7.
13. Woo Jae-Ho, "Perspective of a Taiwanese Intellectual Wei Qing-de on Early 20C Japan", *Proceedings of Society for Cultural Interaction in East Asia, 8th Annual Meeting 2016*, Vol.8, The Society for Cultural Interaction in East Asia, Japan, Kansai University, 2016. 5.7, pp.89-97.
14. Woo Jae-Ho, "Perspective of a Taiwanese Intellectual Wei Qing-de on Early 20C Joseon", *Journal of North-East Asian Cultures*, Vol.47, The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n Cultures, 2016.6. 30, pp.25-42.
15. Xiang Da, The cause of the Joseon servitude and The speculation about availability for Reconstruction, *Shidi Yanjiu*, Vol.1 No.3, pp.63-72, Minguo11[1922].5.
16. Xiang Da, The cause of the Joseon servitude and The speculation about availability for Reconstruction(A sequel), *Shidi Yanjiu*, Vol.1 No.4, pp.51-66, Minguo11[1922].8.

<참고문헌>

1. 최원식·백영서 엮음, 《대만을 보는 눈-한국 대만, 공생의 길을 찾아서》, 서남동양학학술총서, 창비, 2012.11.
2. 黃寬重 主編, 《中韓關係中文論著目錄》, 漢學研究資料及服務中心叢刊, 漢學研究資料及服務中心編印, 民國76年.
3. 黃美娥 編, 《魏清德全集》(全8冊), 國立臺灣文學館, 2013.12.
4. 李摺榮, <旅行朝鮮感言>, 《東方雜誌》 第13卷 第7號, 民國5年.7.10.
5. 梁啓超, 《各國興亡小史八種》, 中華書局, 1936.
6. 梁啓超, 《梁啓超全集》(全10冊) 3-4冊, 北京出版社, 1999.
7. 露存女士, <南滿朝鮮鐵路旅行記>, 《國聞周報》 第3卷 第40號, 1-3쪽, 民國15年.10.17.
8. 露存女士, <南滿朝鮮鐵路旅行記(續)>, 《國聞周報》 第3卷 第41號, 1-3쪽, 民國15年.10.24.
9. 喜安幸夫(干城 譯), 《臺灣志士抗日秘史》, 聚珍書屋出版社, 民國71年.
10. 申正浩, <臺灣文學之韓國認識—二十世紀前半期東亞文學的一風景>, 《中國現代文學》 第32號, 2005.3.
11. 王桐齡, <遊朝鮮雜記>, 《東方雜誌》 第18卷 第14號, 91-94쪽, 民國10年.7.25.
12. 魏建功, <僑韓瑣談>, 《魏建功文集》 第5卷, 江蘇教育出版社, 2001.7.
13. 禹在鎬, <20世紀初 日治時期 臺灣知識人 魏清德의 日本 認識>, 《東アジア文化交渉學會第8會國際シンポジウム發表論文集—東アジア文化交渉学の新しい歩》 第8輯, 2016.5.7, pp.89-97.
14. 禹在鎬, <臺灣 知識人 魏清德의 20世紀初 朝鮮 認識>, 《東北亞文化研究》 第47輯, 2016.6.30, pp.25-42.
15. 向達, <朝鮮亡國之原因及其能否復興之推測>, 《史地學報》 第1卷 第3號, 63-72쪽, 民國11年.5.

16. 向達, <朝鮮亡國之原因及其能否復興之推測(續)>, 《史地學報》第1卷第4號, 51-66頁, 民國11年.8.

<Abstract>

This paper intends to analyze the perspective of a Taiwanese intellectual Wei Qing-de on the Northeast countries including Japan, Joseon, China and Manchuria in the early 20th century, based on the travelogue of the journey to Japan, Joseon, China and Manchuria. Wei Qing-de, who was born in Taiwan and lived there his whole life. Wei Qing-de was one of the Taiwanese intellectuals who traveled each country in Northeast Asia as a poet and a journalist, and left a significantly large amount of poetry and proses describing the images of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based on his experiences. This research aims to summarize Wei Qing-de's journey and purpose of trip to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including Japan, Joseon, China and Manchuria and the sentences describing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among his poetry and prose, and identify the recognition of Taiwanese intellectual Wei Qing-de of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based on the literary works. Wei Qing-de recognized that the current point of Northeast Asia was an emergency situation after traveling around Manchuria and Joseon in 1935, he argued to protect the peace of East Asia and advocate for Pan-Asianism based on the mutual prosperity of Japan and Manchuria. He recognized that Japan was the most appropriate country to execute and achieve the proposal.

Key Words : 魏清德(Wei Qing-de), 臺灣知識人(Taiwanese Intellectual),  
東北亞(Northeast Asian), 日本 認識(Recognition of Japan),  
朝鮮(Joseon), 中國大陸(Mainland China), 滿洲(Manchuria)

